

양돈불황 타개를 위한 제언

1. 문제의 제기

이 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양돈산업 내의 가장 큰 변화는 돼지고기 수출 중단이다.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자 국내 과잉공급으로 가축사육두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제까지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되어 왔던 양돈산업을 정예화하고 위생·품질면에서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질적인 구조재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생산량의 11% 정도를 차지하던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됨에 따라 양돈산업에는 가격하락과 소비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 이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급안정을 통한 구조적 수급불안 해소 및 장기적 수출기반 육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3월말 구제역 발생 이후 돼지가격 변동을 살펴보자. 구제역이 발생 중인 4월까지의 산지가격이 하락하였다가 5월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6월 이후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되었다.

5월에 산지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구제역 발생 인근지역의 출하가 제한됨에 따라 출하되어야 할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들어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어 공급이 정상 이상으로 일시에 집중된 데다가 6월 조사된 돼지의 사육두수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산지가격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여름이 일찍 찾아와 돼지고기 수요의 계절적 감소현상이 일찍부터 나타난 것도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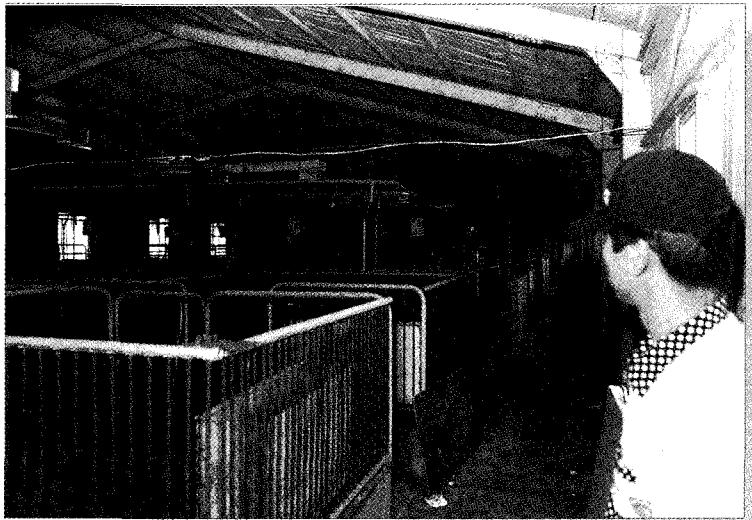
6월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수매라는 허상적 수요에 의해 산지가격이 높게 유지된 데 대한 반응이다. 사육두수 증가가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자 생산자들은 늦게나마 자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0년 6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8,126천두로 지난 1999년 12월 7,864두에 비해 262천두가 늘어나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00년 3월에 비해서도 3.0%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0.7%나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향후 사육두수 증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모든 두수를 보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2.4% 증가한 936천두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8.5%가 증가한 수치이다.

최소한 12월까지의 돼지 사육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미이며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돼지가격은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제 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격의 하락 요인에 대



▲구제역 발생으로 생산량의 11% 정도를 차지하던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됨에 따라 양돈산업에는 가격하락과 소비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 이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급안정을 통한 구조적 수급불안 해소 및 장기적 수출기반 육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해 검토해 보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육두수의 증가이며, 수출물량의 국내 역류에 의한 공급의 과잉이다.

당초 올해 수출물량은 9만톤으로 계획되었으나, 7월까지 수출된 물량은 2만 900톤 정도에 불과하여 6만 9,100톤 정도가 국내로 역공급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6월 조사된 돼지사육두수가 8백만두를 상회하며, 모든 두수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가격 하락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대체재인 쇠고기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쇠고기가 돼지고기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요인도 조금은 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계절적 수요이다. 추석에 즈음한 9월 중순에는 수요의 일시적 증가가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전례없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10% 정도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평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큰 요인들만 살펴봐도 가격이 상승할 요인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크다. 이러한



▲적정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격수준을 전제로 한 사육두수를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요인을 감안하면 국내 돼지 두당 가격은 9월말 경부터는 하락을 계속하여 가격은 낮은 상태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이냐에 있다.

적정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격수준을 전제로 한

의 감축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가격 수준에서 최소한 2005년 정도까지는 돼지고기 수입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어떻게 사육두수를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생산자들의 자율적 조정이다.

사육두수 조정이 생산자 입장에서든 득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생산성이 낮은 돼지를 감축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양돈농장에 대해

적정 가격 수준을 농가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생산비 수준 두당 15만 7천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추정한 결과, 적정사육두수는 760만두 정도로 나타났으며, 2000년 6월 사육두수인 812만 6천두에 비해 6.4% 정도의 감축을 의미한다.

3. 양돈불황 타개를 위한 제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돈불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육두수의 조정이 중요하다.

가격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과다 사육이라는 공급측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육두수를 찾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적정 가격 수준을 농가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생산비 수준 두당 15만 7천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규모를 추정한 결과, 적정사육두수는 760만두 정도로 나타났으며, 2000년 6월 사육두수인 812만 6천두에 비해 6.4% 정도

퇴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모돈도태 장려금을 지급하여 모돈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지도 모른다.

또 하나, 현재 사육되고 있는 초과분의 일부를 대북경협자금을 이용하여 돼지고기 대북지원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조정 폭을 줄이기 위

해 장기적으로 밀집사육지역의 가축을 분산 사육할 수 있도록 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한다.

구제역 이후 수매가 시작되고 7월 18일자 수매분 재고가 23,301톤 정도나 되며, 이러한 수치는 전체 국내산 생산량의 31%에 해당한다.

하반기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돼지고기 재고는 후반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매 돼 재고기를 현 시점에서 방출할 경우 가격하락의 속도가 빨라질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수매분의 방출시기를 늦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급의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돼지고기 수요기반 확충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포크 커트렛(돈까스)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수제(手製) 햄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녹색관광(Green Tourism)과 연계하여 많은 양을 판매한다. 우리도 차체에 농장에서 직접 수제 햄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제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소비 촉

진을 위해 생산자를 중심으로 자조금 조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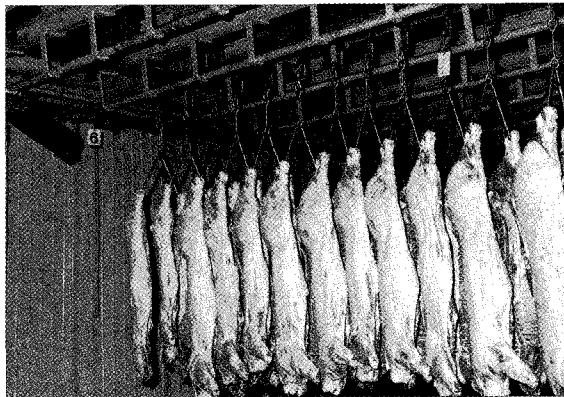
이 외에도 군납과 학교 급식에 돼지고기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과 축산물 가격하락이 시장에 반영

되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통 및 가격체계를 재정립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습은 마을에 애경사가 있을 때 돼지나 소의 머리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이를 과잉부위인 후지, 안심, 등심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수요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다름 아닌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만에 하나 구제역이 재발될 경우 또 한번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재개는 요원해지고, 수요의 감축도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돈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돼



▲우리도 차체에 농장에서 직접 수제 햄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제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자를 중심으로 자조금 조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에서 발병된 것이 아니라 고깃집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결국 구제역 파동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바로 양돈 산업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재발을 방지하고 만에 하나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초동에 박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구제역 방역작업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프로그램에 의한 박멸 준비를 통해서만이 극복 가능하다.

하루빨리 구제역을 박멸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을 선언한 뒤, 중단된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양돈**